

전남광주 신규 상장사 10년간 단 ‘9곳’

CEO스코어, 신규 상장사 본점 소재지 조사

서울·경기·인천은 661곳…전체 75.4% 차지

호남권 상장사 비중 2.9% 불과 ‘제자리걸음’

기업 발굴·투자 유치·상장 연계 지원 강화 시급

최근 10년간 전남광주에 본점을 둔 신규 상장사가 9곳에 그친 반면 서울·경기·인천에 본점을 둔 기업은 661곳에 달해 자본 시장 진입을 둘러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본사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기업 발굴부터 투자 유치, 상장 준비까지 단계별로 연계하는 지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6년 말(1898곳)과 2026년 7월 말(2554곳)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본점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877곳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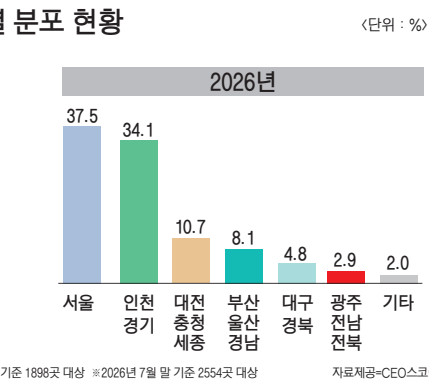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전남에 본점을 둔 신규 상장사는 6곳으로 전체의 0.7%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보다 적은 3곳으로 0.3%에 머물렀다. 전남광주를 합쳐도 신규 상장사는 9곳으로 전국 신규 상장사의 1.0%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지역에서 성장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 한 해 평균 1곳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 본점을 둔 신규 상장사는 661곳으로 전체의 75.4%에

달했다. 신규 상장사 4곳 가운데 3곳이 수도권에 자리 잡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곳, 경기가 300곳으로 두 지역에만 신규 상장사가 집중됐다. 경기에서는 판교가 있는 성남이 82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39곳, 용인 33곳, 안양 23곳, 수원 22곳 등의 순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전남광주의 신규 상장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은 최근 10년간 신규 상장사의 12.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권역 가운데 두 자릿수 비중을 기록한 곳은 충청권이 유일했다.



충북의 신규 상장사는 39곳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충남은 33곳, 대전은 29곳, 세종은 5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의 신규 상장사 비중은 4.4%, 대구·경북은 3.6%를 기록했다. 전북도 1.3%로 전남광주보다 0.3%p 높았다. 강원은 8곳으로 0.9%, 제주는 2곳으로 0.2%를 차지했다.

신규 상장사의 수도권 편중은 전체 상장사 분포에도 반영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상장사 2554곳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본점을 둔 기업은

1827곳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16년 말에는 전체 상장사 1898곳 가운데 수도권 소재 기업이 1325곳으로 69.8%였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상장사는 502곳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p 뛰었다.

수도권 내부에서는 서울보다 경기·인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소재 상장사 비중은 2016년 38.7%에서 올해 37.5%로 1.2%p 낮아진 반면 경기·인천은 31.1%에서 34.1%로 3.0%p 높아졌다.

호남권 상장사 증가세는 수도권과 비교해 더뎠다.

올해 광주·전남·전북에 본점을 둔 상장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10년 전보다 0.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광주는 전체 상장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0.2%p 감소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의 상장사 비중은 10년 전보다 0.7%p 상승한 10.7%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충청권은 신규 상장사를 끌어들이며 기업 기반을 넓힌 반면 호남권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한 것

이다. 기업의 본점 이전도 수도권과 지역 간 상장사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점을 옮긴 상장사는 29곳이었으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25곳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성장한 기업이 증시 상장에 이르는 사례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수도권과의 상장기업 격차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유망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에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있지만 투자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 기업공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더치지 않고 자금 조달과 성장 지원, 상장 준비까지 단계별로 연결해 지역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폭염에 채솟값 ‘경충’…전남광주 장바구니 물가 비상

시금치 85%·애호박 44% ↑…고온에 출하·수확 차질

배추·오이도 줄상승…폭염 장기화에 추가 인상 우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이 전남 광주지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고온으로 농산물 생육이 늦어지거나 수확·선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한 달 새 큰 폭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금치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10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85.3% 급등했다.

갯잎도 50g당 987원으로 41.4% 올랐으며 상추는 100g당 1230원으로 31.3% 상승했다.

배추와 양배추도 오름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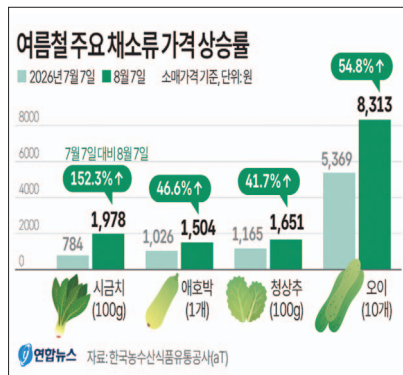
배추는 한 포기에 3509원으로 한 달 전보다 28.0%, 양배추는 3067원으로 5.5% 각각 올랐다.

과채류도 폭염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애호박은 한 개에 1036원으로 한 달 전보다 44.5%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7977원으로 38.7% 상승했다.

30도를 웃도는 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농작물의 생육이 지연되고 수정 불량과 기형과, 열과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금치와 갯잎 등 일부 채소류는 고온에 취약한 데다 수확과 선별 작업 자체도 어려워지면서 출하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물가정보를 보면 마니라는 1kg에 1만6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8000원 올랐으며, 청오이는 10개에 1만3000원으로 6000원 상승했다.

시금치는 한 단(400g)에 8000원으로 한 달 전 4500원, 갯잎은 한 근(400g)에 1만원으로 4000원이 각각 올랐다.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농산물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

다. 여기에 집중호우 등 추가적인 기상 악재까지 발생하면 생산과 출하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 확보와 생육 관리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 멀칭필름,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배추와 무는 각각 1만5000과 6000t의 정부 수급 물량을 확보했으며, 출하량이 감소할 경우 도매시장과 가공업체 등 실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상추 등 시설채소류는 기온이 낮아지면 출하량이 회복될 수 있고, 침수 등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파종·정식 이후 20~3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 다음 달과 추석 성수기까지는 공급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배송하고 주차하는 ‘이동로봇’

오늘 판교테크노밸리서 설명회

정부가 배송과 주차 등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체계, 사고 조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4개 홈플러스 점포 문 다시 연다

광주 하남·동광주점…전남 광양·순천점 영업 재개

육류·수산물·과일 등 주요 먹거리 최대 50% 할인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재개장 대상 67개 점포는 지난 7일부터 가오픈을 진행하며 최종 운영 점검과 보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3일부터는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특히 67개 점포 가운데 59개점은 재개장과 동시에 온라인 영업도 함께 재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강동·강서·금천·방학·남현·상봉·신도림·영등포·월곡·월드컵·합정점 등 11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16곳, 부산·울산·경남·경북 12곳, 대전·세종·충남·충북 8곳, 광주·전남·전북 6곳, 인천 5곳, 대구 4곳, 강원 4곳, 제주 1곳 등이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광주 하남점과 동광주점, 전남 광양점과 순천점 등 4개 점포가 재개장에 포함되며 지역 소비자들의 장보기 편의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프라인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상품 주문도 재개되면서 그동안 입

시휴업으로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홈플러스는 재개장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도 마련했다.

13일부터 4일간 마이홈플러스 회원의 대상으로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3일간은 당일후라이드치킨을 50% 할인에 판매한다.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과 목심 등 육류를 비롯해 수산물, 과일, 과자와 음료, 델리, 베이커리 등 주요 먹거리도 기간별로 최대 50% 할인하거나 1+1 행사 등을 진행한다.

재개장 행사는 8월 말까지 점포 휴무일을 제외하고 이어진다.

다만, 재개장 행사 상품은 점포별 취급 품목과 재고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재개장을 계기로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점포 운영 체계를 복원해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선식품과 축산물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가계의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민생활기반시설인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홈플러스를 많이 이용해달라”며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홈플러스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홈플러스는 화성점과 제주와 전 점포 임시휴업까지 이어지며 청산 위기에 놓였으나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부터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를 가오픈했다. 영업 재개를 앞두고 고객 관심도 되살아나며 임시휴업 이후 감소했던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앱 방문자는 개장 일정을 안내한 지난 6일 지난해 같은 기간을 웃도는 10만명에 달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재개장을 계기로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점포 운영 체계를 복원해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1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최종 결의

대한항공 이사회·아시아나 주주총회서 합병 승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합병의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참석률은 81.9%, 찬성률은 99.3%였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5년 넘게 이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다”며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때가 캐리어로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합병의 소규모 합병 요건을 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도 지난 7월 24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에 맞춰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통합사 운항증명(AOC) 및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양사의 합병 결의가 완료됨에 따라 통합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사는 ‘원 팀’(One Team)이 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으로,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